

# 조선팝 판소리의 서사와 더듬 대중성 시론

- 서도밴드의 춘향가를 사례로 -

장윤희(서울대학교 국악과 강사)

1. 서론
2. 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본질의 화두
  - 2.1 판소리의 변화와 형상
  - 2.2 판소리의 본질과 무게중심
3. 신진 판소리 아티스트
  - 3.1 서도밴드의 등장
  - 3.2 공연 활동 양상
4. 조선 팝의 대중성과 판소리성
  - 4.1 이야기 한바탕
  - 4.2 창법과 극적 분위기
  - 4.3 공감 언어로의 사실치레
  - 4.4 새로운 이야기 더듬
5. 결론

---

최근 판소리는 대중적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조선) 고유의 흥겨운 감성을 가진 음악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판소리의 대중음악성을 부각하며 등장한 서도밴드(sEODo밴드)의 '조선팝' 음악을 분석하여 판소리 대중화와 창작판소리의 생산과정의 의미와 서사성의 맥락을 논의하였다.

판소리 대중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 판소리의 변화를 지칭하며 근래 시도된 대부분의 판소리 창작 현상을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험하는 이 시대 소리꾼들의 예술정신을 포용하려는 의미를 담아 왔다. 시도와 모험을 격려하는 열린 개념에서 점차 규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판소리의 대중화는 음악적 요소와 외적 양식에 무게를 두기보다 창작판소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소리꾼이 서사성의 현대화와 동시대적 더듬의 확보라는 책임감 있는 재맥락화를 달성할 때 가능하다.

서도밴드의 조선팝이 갖는 차별성은 춘향가 한바탕을 노래하고 판소리의 더듬과 동일한 음악을 생산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현대적 서사와 더듬의 노랫말은 과거의 언어적 수사를 따르지 않는다. 대중음악의 자유가사 형식을 많이 취했지만, 대중가요가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등의 수사법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보다 차별성이 있다. 춘향가에 없는 내용을 담은 창작곡은 춘향가의 전개를 변형하지 않으면서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동시대 인간관계의 정서로 표현하며 ‘공감서사’를 강화하고 완성하였다. 대중음악적 요소와 현대적 노랫말을 가진 짧고 편안한 서도밴드의 음악은 <춘향가: 대중가요제 서도밴드바디 스윙조/알앤비조>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

---

주제어: 판소리 대중화, 창작판소리, 서도밴드, 춘향가, 더듬, 동시대 국악

## 1. 서론

최근 판소리를 소개하는 수사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대 현대적 감성의 판소리를 ‘랩창’이나 ‘랩타령’으로 소개하며 서구 대중음악 랩(rap)과 국악을 결합한 용어, ‘소리’와 ‘코리아’를 합친 ‘소리아’(Sorea) 등의 용어와 다르다. 판소리 특유의 음악요소나 한국의 음악임을 강조하는 대신, 동시대 대중음악으로 “판소리 신드롬”(한

재원, 2021: 95)을 일으키는 아이콘적 수식어로 ‘조선 클럽 뮤직’, ‘조선 힙합’, ‘판 스타’(star), ‘조선 팝’(pop), ‘조선 흥’, ‘풍류대장’, ‘조선 힙스터’가 사용된다. 새로운 판소리는 서양의 것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한국(조선)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한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감성을 가진 현재의 음악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판소리가 대중의 공감을 주요 요소로 하는 음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판소리의 대중화, 혹은 대중음악으로의 전통음악이 창작되는 방식, 판소리의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대상은 자신의 음악을 ‘조선 팝’이라고 소개하며 판소리 춘향가의 눈대목 〈이별가〉, 〈사랑가〉, 〈쑥대머리〉 등을 서양식 대중음악 밴드와 결합하여 작곡한 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도밴드를 주요 범위로 한정한다.

서도밴드의 음악은 기존 춘향가를 편곡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언제까지〉와 〈내가 왔다〉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곡을 여타 춘향가 관련 곡에 이어 부르며 이야기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조선 팝’은 판소리의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으로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움과 대중성을 주고 있을까?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판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사되고 그 서사성이 유지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서도밴드 음악의 구성, 창법, 가사, 선율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중음악으로의 판소리 생산과 대중성을 위한 전략과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창작 판소리의 작사 원리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대중가요 작사법에 관한 시론에서 서사 가사의 소설이나 희곡과의 절충성을 제시하고 있거나(이호섭 2020), 최근 주목을 받았

던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 창작방식과 문학적 측면에 관한 논의가 있다(임형택, 2021). 본 연구는 창작판소리의 흐름을 잇는 후속연구이며 새롭게 등장한 음악용어와 그 특징을 다룬다. 동시대의 전통음악에 관한 연구에 시의성 있는 판소리 대중화 담론의 사례를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음악 생산과 대중적 소비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판소리 작창의 요소는 물론 대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에 관한 구체적 예시로 국악작곡의 원리와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 2. 판소리의 존재 양상과 본질의 화두

### 2.1. 판소리의 변화와 형상

최근 무대에 등장한 판소리의 모습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음악인들의 협업적 행보로 시도되는 다채로운 형태의 음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판소리 전공자가 메인보컬로 참여하고 다양한 악기편성을 수반하는 예술집단이나 서구 대중음악 장르를 도입해 록, 레게, 힙합 전문가들과 함께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 대세이다. <서도 밴드>, <프로젝트 락>, <조선 블루스>, <이날치 밴드>, <소울소스 x 김윤희>를 예로 들 수 있다.<sup>1)</sup> 이들은 창작 판소리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온 소리꾼 김명자, 이자람, 이나래나 판소리 전공자 일색으로 꾸린 극단 타루, 바닥소리 등과 차별된다.

---

1) 현경채는 판소리를 도입한 여러 음악단체를 전통음악 중심의 실내악단과 대중음악과 경계선에 있는 실내악단으로 분류하였다. 현경채, 2018, 『국악실내악단 활동의 흐름과 전망』, 『한국음악사학보』, 60집, 217-251쪽.

음악적 탈맥락으로 판소리에 나타난 가장 표면적인 변화는 제 3 세계의 음악화로 현대화를 시도한 경우이다. 연주단 명칭의 접두사, 혹은 꾸밈말도 ‘월드그룹’ 루트머지, ‘에스닉 퓨전밴드’ 두 번째 달, ‘에스닉 팝’ 프로젝트 락 등으로 음악에서 지역성이나 장르적 상징성을 탈피하고자 한다. 국악 ‘아카펠라그룹’ 토리스의 경우는 여창 판소리를 알토, 남창 판소리를 바리톤, 서도민요를 테너로 분류하며 서양 클래식음악의 분류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판소리와 민요의 멋을... 세계 민족음악을 모두 수용하고, 새로운 결합을 통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제 3세계 음악을 개척하고자” 하는 판소리를 표방한다고 밝힌다.<sup>2)</sup>

판소리가 타 장르와 전문적으로 융합되어 협업창작의 독특한 콘텐츠로 무대에 등장하는데, 음악적 결합을 넘어서 무용, 연극, 미디어아트 등의 타 예술 분야와 긴밀하게 작업한다. 2014년 루마니아 출신의 안드레이 서반이 연출한 국립창극단의 <다른춘향>은 춘향가의 현대화와 새로운 극적 구성을 보여준 창극이며, 2017년 11월 세계 4대 오페라축제에서 선보인 오페라 <칭>은 서양 클래식과 만난 새로운 심청가이다. 2018년 말 정동극장에서 선보인 <주름이 많은 소녀>는 공옥진의 춤과 삶을 토대로 한 무용 작품으로, 이자람이 음악감독, 이나래가 소리를 맡고, 5명의 무용수가 등장한 창무극이며, 2020년 조정래 감독의 영화 <소리꾼>은 심청가를 뮤지컬화 한 영화로 현장공연에서 담을 수 없는 조선시대 기층민의 삶의 배경을 현실적으로 영상에 담아 판소리의 역사성과 시대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춘향탈옥>은 ‘로맨틱코메디 오페라’로 명명된 신세대 감성의 뮤지

---

2) <국악아카펠라 공연 섭외 토리스> <https://blog.naver.com/junsu1199/221889475992>

컬 연극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생겨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판소리의 역사와 형성과정에서 늘 있었던 한국사회의 반영과 한국인의 정서 표출의 연속이다(장윤희, 2015: 212). 이전의 판소리에 새로움을 더한 서사성의 유지라는 점에서 대화창, 신연극, 창극, 판소리 애니메이션, 판소리 서바이벌 오디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대 사람들의 공감을 위한 새로운 서사의 도입이나 형태와 방식의 변화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기존의 작품이 갖고 있던 “서사들을 결합시키면서 재맥락화 하는 작업을 통해 창작된 작품은 공감서사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권도영, 2019: 161). 판소리는 “부단한 창조적 계승의 과정 가운데 존재[하며]. ... [판소리가 등장한 18세기부터 19, 20세기를 거칠 때마다 판소리는] 그 속속들이는 모두 달랐으며, 심지어는 특정 명창의 소리도 그때마다 달랐다. 이것은 [판소리만의 특징이 아니라] 예술이 추구하는 ‘차이 그 자체(différence en elle-même)’이다”(임형택, 2021: 129).

## 2.2. 판소리의 본질과 무게중심

판소리의 변화를 “용감한 모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문학적, 음악적, 연행적인 면에서의 완성도와 대중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편성에 주목해야 한다(박성환, 2014). 판소리의 대중화와 관련된 방향과 양상은 판소리 예술가들(혹은 기관)이 음악의 수요층을 넓혀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온 것에 대한 긍정적인 소개와 설명이었다. 많은 수의 담론적 논의에 견주어 볼 때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술적 시각에서 선택한 판소리의 중요한 요소와 상징성 변화에 관한 음악적 분석은 부족하였다.

근간의 판소리 변화에 관한 연구는 대중적으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한 이날치 밴드에 국한되어 있는데, 관련 학술논문이 올해 상반기에만 8여 편 출판되었다. 이날치밴드의 음악이 ‘성음’, ‘선율’, ‘서사성’, ‘이면의 실현’이라는 판소리의 장르 요소를 갖춘 음악으로 인정한 연구(김영주, 2021)<sup>3)</sup>와 무엇이 어찌 변하였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문학으로의 수궁가이기에 토끼와 거북이, “범”이라는 이야기의 존속으로 결국 판소리의 전승 임무를 다한 점, 판소리의 의미는 새로운 것의 “단지 즐거움”이며 “예술적 본질(‘차이 그 자체’)을 경험하는 즐거움”이라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임형택, 2021: 109).

문화콘텐츠 개발과 한류의 관점에서 이날치밴드의 음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전통문화와 서구 대중문화’, ‘국악과 서양음악’의 접속과 재배치를 통해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혼종 예술을 창조한 “장르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이명현, 2021). 문화세계화의 관점에서 이날치밴드의 음악이 문화다양성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혐한현상이나 민족주의 문제를 야기하는 한류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부각되었는데, 최근 K-pop은 지나친 상업주의와 문화민족주의의 논리로 비난받기도 하는 이날치 밴드의 음악여정이 “문화적 원칙과 윤리이자, 글로벌 문화예술의 신에서 갖추어야 할 균형적인 감각”이라는 점이다(이동연, 2021: 69). 대체적으로 K-pop, 국악, 현대무용의 협업을 통한 융합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국가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켰다고 본다.<sup>4)</sup>

---

3) 김영주가 언급한 이날치밴드 음악에서의 판소리적 요소를 차용한 점과 “사설의 음악적 전달을 통한 감동으로 이면을 그린다”(239-241쪽)와 관련된 논지에 관한 견해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4) 박영상. “뉴노멀시대 무용 공연 · 교육 · 정책 분석을 통한 패러다임 형성과 아젠다 연

새로운 판소리가 가진 참된 예술가치 혹은 판소리적 의미에 대해 대중들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화되어 해외에서 주목받는 판소리는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미디어에 등장한 판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판소리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이태화, 2013: 155-161). 무분별한 생산에 대한 우려가 창작판소리에 대한 “엄중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 요구를 야기한다(권도영, 2019: 160; 김영주, 2021: 241).

관객들이 대중화된 판소리에 대해 갖는 의견이 판소리를 정의하기 위해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국악의 대중화에 있어서 생산물의 선택권을 가진 대중들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근거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선호의 이유를 파악하여야 판소리의 본질과 ‘결정’을 위한 기준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기표로서 대중이 탈승화된 쾌락의 소비자인 대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국악대중화가 존재”하고, 예술성이나 진정성의 측면에서 예술인은 대중의 취향만을 저격하려는 경향도 있기에(라예송 2015: 91) 판소리가 보존해야 하는 혹은 가장 본질적 특징이 되는 무엇이 새로운 음악에 무게중심으로 남을 수 있는가는 소리꾼의 선택과 대중의 선택이 다르다.<sup>5)</sup>

혹자는 대중과 관객이 창작 판소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 진정한 완성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sup>6)</sup> 그러나 자극적 변화를 지닌

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5) 라예송(2015)의 주장에 의하면 국악의 언어, 국악의 관습을 전복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이루겠다는 국악대중화의 시도들이 역으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국악을 전복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인기표로서의 대중과 탈승화를 통한 관리대상으로서의 대중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주인기표로서 대중이 탈승화된 쾌락의 소비자인 대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국악대중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6) 김영주(2021)는 수용자들은 유대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팬덤을 이루고, 팬덤 안에서



혼종의 음악만으로 대중의 취향 저격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대중이 진정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판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선택하려는 과정이 더욱 바른 판소리의 생산을 독려할 수 있다.

[이날치 밴드] ‘순 거품이잖아’... 엉망진창... 환불해 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 완전히 관객을 호구로 보는구나... 멍청한 관객들이 박수쳐주고 신나하니까 본인들도 잘하는 줄 알고 ...

단순한 퍼포먼스 중심의 공연을 할 거면 수궁가라는 작품 이름 자체를 쓰면 안 되고... 가락의 형식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전하는... 소리꾼의 입장에선 가장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자체가 전혀 완성이 안 되어 있어.<sup>7)</sup>

소략하면 최근 판소리 대중화에 대한 분명한 답론은 “변하는 것”이며, 변화의 형태는 “즐길 수 있는” 것이며, 그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다양한 가운데 “기준”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변성이라는 창작원리를 통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국악이 갖는 원형의 성질로 볼 수 있고(송혜진, 2015: 28)<sup>8)</sup> 새로운 판소리는 본래의 문화적 다양성, 외부문화 수용의 개방성, 탈경계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이명현, 2013) 판소리의 변화

---

수적으로는 제일 적지만 새로운 가치를 알아보고 콘텐츠에서 특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수용자를 슈퍼팬으로 규정하며, 판소리의 유행은 이날치 밴드가 이루었지만 <수궁가>의 고전적 위상은 슈퍼팬이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김뿌우, <수궁가 봤고 너무 열받아서 쓰는 후기>, <https://geuichana.tistory.com/56>, 2021년 6월 12일.

8) ‘실연’ 중심의 음악전승은 작곡가에 의해 악보에 기보되어 창작된 ‘작품’을 연주자들이 원전에 충실하게 ‘재현’하는 구조의 음악전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전승의 핵심이 음악을 전승하는 ‘사람’에게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이 곧 한국음악의 ‘원형성’이며, 무형(無形)의 시간예술인 한국음악의 원형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온 ‘가변성 농후 한 창작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는 대중성에 앞서 국악의 특징이자 갈래의 가치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유한 전통문화라는 고정 관념을 넘어 개방적 음악으로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려 한다는 시도에 무조건적 격려를 보내기에 앞서 판소리의 본질적 예술성 왜곡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창조적 부가가 있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이다.

### 3. 신진 판소리 아티스트

#### 3.1. 서도밴드의 등장

서도밴드는 노래 서재현, 건반 김성현, 기타 박형식, 퍼커션 박진병, 베이스기타 김태주, 드럼 양정훈의 6명으로 구성된 밴드이다. 2018년 8월 25일에 <제 12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바다’라는 곡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고, 점차 다양한 수상경력과 무대활동으로 여러 젊은 국악 신진예술가들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아티스트 자작곡 경연대회 방송프로그램 <Show your Song>에서 연속 5회의 우승을 거두었고, 같은 해 <제 1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에서 ‘이별가’로 대상을 수상하고 <제 1회 KBS 국악신예대상>에서 ‘내가 왔다’로 대상을 수상하여 며 음악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견 판소리 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애리와 남상일, 국악 성악 대중화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김용우는 서도밴드가 국악신예대상을 수상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음악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중음악 전문가는 서도밴드 음악의 한국 전통음악적 요소가 대중음악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음악은 전통음악의 요소를 적게

갖지만, 근본적인 의미의 전통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좋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판소리의 형식을 과감하게 차용하면서 각자의 밴드의 색깔을 딱 확실하게 드러내니까 판소리의 창법을 많이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을 때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sup>9)</sup>

밴드의 리더 서재현은 어려서부터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한국무용 등을 익혔고,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고등학교 때 전공을 바꿔 동아 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작곡과로 진학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음악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양음악과 대중음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왔다. ‘서도’(sEODo)는 서재현의 예명으로 세종대왕의 이름 ‘이도’의 ‘도’자를 따왔다.<sup>10)</sup>

세종대왕의 음악의 발전과 여러 기여로 백성들이 삶을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업적을 담고 있어 서도의 이름은 한국적인 의미와 한국문화에 대한 사명을 담고 있다. 서도는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과 어린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람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그룹을 결성하였고,<sup>11)</sup> 서도밴드는 자신들의 음악에 “조선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국악의 특징적인 이

---

9) <KBS 국악한마당 ‘2019 KBS 국악신예대상’>, 서도밴드 공연의 심사위원 심사평 부분(42분 13초 한웅원심사위원),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밤 11시 40분 KBS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P\\_Yx\\_bs36TM](https://www.youtube.com/watch?v=P_Yx_bs36TM) (2021년 10월 17일 접속)

10) 영어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소문자로 쓰는 것은 대중들이 서도밴드의 노래를 청각적으로 기억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다.

11) <조선 팝 아티스트 ‘sEODo’ 세 번째 싱글 [사랑가] 앨범 발매 기념 인터뷰>, [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mgz\\_seq=7850genie](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mgz_seq=7850genie) (2021년 10월 17일 접속)

야기, 리듬, 멜로디를 기반으로 팝적인 요소들과 혼합하여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시대의 ‘Popular music’이 될 신선하고 독보적인 장르를 만들고자 한다.

### 3.2. 공연 활동 양상

서도밴드의 공식적인 공연 활동은 2018년 8월 토크콘서트 형식의 ‘off the stage’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서도밴드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KBS 국악한마당의 국악 신예 발굴 프로젝트인 ‘비상’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후 라이브카페나 버스킹 공연을 시작하였지만 대중에게 인지도를 얻지는 못하였다.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전환점은 Mnet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7> 출연으로, 유튜브 ‘Mnet Official’ 채널의 영상 조회가 약 183만 건을 넘어섰고 1700건 가량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성이 증명되었다.<sup>12)</sup> KBS 불후의 명곡 <2020 국악인 특집> 편에 출연해서는 이미 대중적 이름을 알린 남상일, 박애리, 송소희 등과 겨루는 구성으로 서도밴드의 공중과 방송출연이 경험축적과 대중적 인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서도밴드의 음악은 한국전통음악으로의 콘텐츠화와 해외진출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Journey to Korean Music>의 신진음악 발굴프로그램인 <저니루키>에 선정되었는데, 선배 세대의 활동양상을 쫓기보다 신진단체의 새로움과 실험성, 도전성에 중

---

12) 유튜브 채널 Mnet Official,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7, 제 12회, 2020년 4월 3일,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소름 끼치는 ‘조선’ Pop 무대! 장관상 받은 퓨전 국악인(서재현)의 ‘야상곡’ & ‘사랑가’>, [https://youtu.be/tSq-9cqyz\\_w](https://youtu.be/tSq-9cqyz_w)

심을 두는 심사과정과 향후 활동이 기대되는 실력을 겸비한 단체 중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최종 3팀에 진입하였다.<sup>13)</sup> 〈강강술래〉 영상은 조회수 1530회, 좋아요 66개를 받아 당해년도 영상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sup>14)</sup>

국악계에서는 드물게 서도밴드는 첫 번째 앨범 〈Moon : Disentangle〉의 발매를 대중들에게 후원을 받아 제작하였다. 텀블벅(tumble bug)은 창의적인 시도를 함께 실현시키고자 만들어진 펀딩 커뮤니티로 문화예술, 출판, 패션, 게임까지 다양한 분야 크리에이터들의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모금하는 플랫폼이다.<sup>15)</sup> 서도밴드는 자신들의 음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당초 필요금액보다 50% 많은 금액을 모금하여 앨범 발매 외에 메이킹 영상과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까지 총 2편의 뮤직비디오 영상제작에 성공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공연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게 되었다.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공연환경은 서도밴드의 대중적 인기와 급속한 인지도 상승을 견인하였다. 2020년 하반기 공연 스케줄이 모두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었지만, 바로 온라인 공연활동을 진행한다. 현재 3.5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공식 유튜브

---

13)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지사항 <2020 저니투코리아음악 (Journey to Korean Music) 프로그램 공모 선정결과 안내> [https://www.theapro.kr/kor/kams/notice\\_view.asp?idx=6165&searchColumn=title&searchKeyword=2020%20%EC%A0%80%EB%8B%88%ED%88%AC%EC%BD%94%EB%A6%AC%EC%95%88%EB%AE%A4%EC%A7%81&r\\_category=](https://www.theapro.kr/kor/kams/notice_view.asp?idx=6165&searchColumn=title&searchKeyword=2020%20%EC%A0%80%EB%8B%88%ED%88%AC%EC%BD%94%EB%A6%AC%EC%95%88%EB%AE%A4%EC%A7%81&r_category=) (2021년 10월 17일 접속).

14) 가장 많은 조회수는 고니아 2.9천회이며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헤이스팅은 102회에 그친다. 고니아의 음악은 국악기가 아닌 기타연주이다.

15) 모금은 2021년 2월 28일 시작되어 4월 9일 마감되었고, 목표 금액의 159%를 달성하였다. ‘tumblebug’ 사이트 [https://tumblebug.com/seodoband\\_d](https://tumblebug.com/seodoband_d) (2021년 10월 10일 접속)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식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City Lights>의 뮤직비디오는 불과 3개월 전인 6월 21일에 최초 공개된 후 10월 2일 기준 조회수 46,145회를 기록하고 있다. <서도밴드-kiwa LIVE session>은 9월 28일 공개 이후 4일 만인 10월 2일 현재 조회수 6,312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라디오방송, 공연실황의 네이버TV, 브이라이브 생중계, Tik Tok을 통해 음악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sup>16)</sup>

<표 1> 서도밴드 앨범 및 수록곡

| 발매일          | 유형       | 앨범                         | 수록곡               | 장르        |
|--------------|----------|----------------------------|-------------------|-----------|
| 2018. 11. 01 | 기타       |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 바다                | 가요/국악     |
| 2019. 01. 10 | 싱글       | 바다                         | 바다                | 클래식/크로스오버 |
| 2019. 02. 13 | 싱글       | 틀                          | 틀                 | 가요/인디     |
| 2019. 12. 26 | 싱글       | 사랑가                        | 사랑가               | 가요/R&B/소울 |
| 2020. 04. 28 | 싱글       | 주인공                        | 주인공               | 가요/인디     |
| 2020. 05. 17 | 싱글       | 이별가                        | 이별가               | 가요/국악     |
| 2020. 07. 19 | 싱글       | sEcREt                     | sEcREt            | 가요/인디     |
| 2020. 08. 03 | 프로젝트     | 하시절                        | 밤바다               | 가요/인디     |
| 2020. 10. 21 | 기타       | 불후의 명곡 2020 국악인 특집         | 강강술래              | 가요/국악     |
| 2020. 12. 13 | 싱글       | Influencer                 | 새파란아이, AMY 외      | 가요/인디     |
| 2020. 12. 21 | 싱글       | 10                         | 10                | 가요/인디     |
| 2021. 01. 17 | 베스트 컬렉션  | tvN 주말드라마 철인왕후 OST Part. 6 | 철인시대 위대한레시피       | OST/드라마   |
| 2021. 03. 24 | 싱글       | PERFECT                    | PERFECT, From you | 가요/인디     |
| 2021. 04. 22 | 로컬 하이레코즈 | hOMe                       | hOMe              | 가요/인디     |
| 2021. 06. 20 | 정규 1집    | Moon : Disentangle         |                   | R&B얼반/인디  |

16) 현재까지 서도밴드가 발매한 앨범은 총 14개 전후이며, 2개를 제외한 12개의 앨범은 모두 수록곡이 한 곡씩으로 정규앨범이 아니며, 한국의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한 곡이 수록된 앨범은 4개로 추약할 수 있다.

〈표 2〉 서도밴드의 공연 활동17)

| 날짜   | 공연명                                |                             |
|--|------------------------------------|-----------------------------|
| 2018. 08. 26                                   | 'off the stage' 뮤직콘서트              | 대면 공연                       |
| 2018. 09. 27                                   | 돈화문국악당 공연                          |                             |
| 2018. 10. 12                                   |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버스킹 공연                  |                             |
| 2018. 10. 24                                   | 'ILOMUSIC'(일로뮤직) 버스킹 공연            |                             |
| 2018. 11. 25                                   | 북합문화 페스티벌 '청춘복지-청청 나이트페스티벌'        |                             |
| 2018. 12. 16                                   | 'Blind Music Concert' 신촌 세븐파이브홀 공연 |                             |
| 2018. 12. 19                                   | 2018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기공연 '신작로'          |                             |
| 2019. 01. 12                                   | 뉴욕 라디오 코리아 '기분 좋은 밤' 게스트 참여        |                             |
| 2019. 01. 19                                   | 서울 '엘라의 거실' 공연                     |                             |
| 2019. 01. 30~31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공연                   |                             |
| 2019. 02. 14                                   | 홍대 언플러그드 공연                        |                             |
| 2019. 02. 22                                   | 전주한옥마을 전통성당 버스킹 공연                 |                             |
|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일부 활동 취소 및 연기, 조정 시기 |                                    |                             |
| 2019. 11. 13                                   | 국악방송 라디오 FM99.1 김필원의 맛있는 라디오 출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출연<br>온라인 공연활동 |
| 2020. 04. 03                                   |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7' 출연              |                             |
| 2020. 05.                                      | 유튜브 채널 '데이원스튜디오' 팬미팅 진행            |                             |
| 2020. 06. 26                                   | 정읍 토크콘서트 '농담'                      |                             |
| 2020. 06. 29                                   | 국악방송 라디오 FM99.1 '바투의 상사다야' 출연      |                             |
| 2020. 07. 18                                   | KBS 국악한마당 '해변의 국악 캠프' 출연           |                             |
| 2020. 08. 14                                   | 전주 무형유산페스티벌 '이판사판스테이지' 공연          |                             |
| 2020. 08. 17                                   | YTN라디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출연             |                             |

17) 더욱 자세한 활동내용은 인스타그램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참고.

서재현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seodo\\_o?utm\\_medium=copy\\_link](https://instagram.com/seodo_o?utm_medium=copy_link)

서도밴드 공식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pg/seodoband/posts/>

|              |  |  |
|--------------|--|--|
| 2020. 09. 12 |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특별공연                   |  |
| 2020. 09. 19 | 유튜브 하시절 '인디로운 음악생활' 생중계 출연             |  |
| 2020. 09. 21 | 마포FM '스틸얼라이브' 하시절                      |  |
| 2020. 09. 25 | 아리랑TV '클럽닷컴' 유튜브, 네이버TV, 브이라이브 생중계     |  |
| 2020. 09. 26 | [MU:CON 2020] 온라인 2020 무대 공연           |  |
| 2020. 10. 10 | 유튜브 채널 '대전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  |
| 2020. 10. 12 | 'Journey to Korean Music, 저니루키 쇼케이스 선정 |  |
| 2020. 10. 24 | KBS 불후의 명곡 478회 '2020 국악인특집'           |  |
| 2020. 11. 21 | 한국농어촌방송 전라감영 조선팝 콘서트                   |  |
| 2020. 12. 19 | 유튜브 채널 '서도밴드' 단독 온라인콘서트                |  |
| 2020. 12. 21 | 유튜브 채널 '마포문화재단' 온라인 공연                 |  |
| 2021. 02. 07 | 유튜브 채널 '서도밴드' 온라인 공연                   |  |
| 2021. 02. 14 | 유튜브 채널 '서도밴드' 온라인 공연                   |  |
| 2021. 02. 21 | 유튜브 채널 '서도밴드' 온라인 공연                   |  |
| 2021. 02. 23 | KBS1 '이웃집 찰스' 출연                       |  |
| 2021. 02. 28 | 유튜브 채널 '서도밴드' 온라인 공연                   |  |
| 2021. 02. 28 | E.P <Moon : Disentangle> 앨범 제작 모금 진행   |  |
| 2021. 05. 14 | KBS 라디오 유튜브 '최백호X서도밴드'                 |  |
| 2021. 05. 18 | TBS 라디오 eFM 'Uncoded' 101.3MHz 출연      |  |
| 2021. 05. 23 | Tik Tok 'MUSIC NIGHT' Asia 한국 대표로 출연   |  |
| 2021. 07. 30 | EBS 스페이스 공감                            |  |
| 2021. 09. 19 | KBS 열린음악회                              |  |
| 2021. 10~11  | JTBC <풍류대장> 1회, 6회, 7회 출연              |  |



## 4. 조선 팝의 대중성과 판소리성

### 4.1. 이야기 한바탕

“동양 판타지 서사 한편 똑딱”이라는 수식어가 보여주듯 서도밴드의 음악은 이야기 전개라는 특징이 주목받고 있다. <조선팝으로 들려주는 춘향가 이야기>는 서도밴드가 편곡, 작곡한 곡만으로 <춘향가> 한 편을 구성한 공연인데, 현대인들에게 익숙하고 공감이 가능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본래 이야기에 서도밴드의 의견을 담아 현실적 스토리로 음악을 구성한다.<sup>18)</sup> 춘향가의 눈대목으로 새롭게 구성한 모음곡 형태 <사랑가>, <이별가>, <썩대머리>, <언제까지>, <내가 왔다>는 한 시간 남짓한 공연 시간 내에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별, 기다림, 후회와 갈등, 재회를 모두 들려줄 수 있다. 단가로 시작하는 공연의 오프닝은 본래 판소리 공연의 흐름과 유사하고, 마지막에 흥겨운 곡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한’을 흥으로 ... 감정으로 승화시켜 극복할 수 있었던 조상들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sup>19)</sup>

이야기 전개를 위한 아니리의 활용은 다양한데, 음원에는 아니리가 없이 바로 음악이 시작하기도 하지만 실제 공연에서는 대부분 아니리를 첨가하여 전체 분위기에 판소리의 느낌을 더한다. 곡의 도입부분에 편성된 아니리는 그 내용과 구성이 전통판소리와 다르다.

---

18) 춘향가 외에 남도민요를 모티브로 한 <강강술래>, <뱃노래>, <아리랑>이 있고, 서도밴드의 이름으로 발매되진 않았지만 서재현이 피쳐링한 곡 <망신가>(드라마 ‘제발 그 남자 만나지마요’ ost), 김완선의 <뼈에는 우릴보고 웃지> 등이 주요 공연 레퍼토리이다.

19) 2019년 7월 26일 20시 서울 정동마루에서 공연된 서도밴드 <조선팝 춘향가>의 공연 프로그램 설명서에 수록된 곡과 내용.

본래 〈이별가〉의 아니리는 이 도령이 이별 소식을 알리기 위해 춘향집을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향단이를 만나고 춘향이 오해하고, 부친의 승직 소식에 춘향이 설레발을 치고, 실망한 후 사생결단하려하고, 이도령이 기다리라는 당부와 방자가 재촉하는 등 아니리가 극적 이야기의 전개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길게 서술한다.

서도밴드의 아니리는 장면의 전개를 시각적인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줄 곡의 내용을 대중들이 이해하도록 해당 곡의 배경 상황만을 설명한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래소리에 전자기타가 선율반주를 해주어 음향적으로 풍부하고 듣기에도 좋은 일종의 윙조리는 랩 형태로 발전했다. 4분여의 짧은 한 곡에 모두 담기 부족한 내용만을 대역섯 문장으로 부연하는 전주나 오프닝 부분으로 볼 수 있다.<sup>20)</sup>

〈표 3〉 〈청춘만발〉 공연 내용 및 순서

| 순서 | 곡제목   |      | 내용                               |
|----|-------|------|----------------------------------|
| 1  | 만고강산  | 단가   | 판소리 공연 전 목을 푸는 단계에서 부르는 짧은 노래    |
| 2  | 사랑가   | 4:00 | 남녀 주인공 춘향이와 몽룡의 사랑이야기 노래         |
| 3  | 이별가   | 4:05 | 몽룡이 춘향에게 이별을 고하며 재회를 약속하고 떠나는 노래 |
| 4  | 썩대머리  | 5:52 | 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 고초를 겪으며 그리워하는 노래    |
| 5  | 언제까지  | 4:18 | 춘향이의 감정을 현실적으로 상상해서 새롭게 해석한 노래   |
| 6  | 내가 왔다 | 4:57 | 돌아온 몽룡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상상해서 지은 노래     |
| 7  | 흥     | 4:30 | 공연의 마지막을 다 함께 마무리하는 노래           |

20)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여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에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이별을 고하는디 이 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널 만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지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도련님은 말을 타고 말을 가자고 네 곁을 치는디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 4.2. 창법과 극적 분위기

서도밴드의 판소리는 작사, 작곡, 편곡을 통해 춘향가의 선율, 창법, 형식감에 변화를 주었는데, 판소리 특유의 목소리와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스윙, 재즈, 리듬앤블루스와 같은 대중음악의 선율과 리듬형으로 현대적 분위기를 살린다. 일고수 일명창의 전통형식에서 기타와 건반 악기의 선율반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더해 음향적 특징에서 명확한 차이를 만들고, 이별가에는 해금을 추가해서 애절한 음색은 물론 전통음악의 느낌을 더했다. 박자는 북이 아닌 드럼과 마크트리 같은 타악기로 리듬감을 준다.

대중들이 쉽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율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서사가 아니라 반복과 운율감으로 귀에 익숙하고 기억에 남아 흥얼거리기 쉬운 선율을 갖추었고, 통절의 판소리 형태를 벗어나 유절형식과 후렴구로 형식성을 갖춘다. 대중가요에서 흔히 부르는 애드리브(ad lib)로 즉흥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음과 리듬을 만드는 부분이 강조되고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가사가 아닌 ‘워워~’, ‘우후~’와 같은 입타령으로 질러 내는 부분과, ‘오우예’와 같은 의미 없는 소리는 서구 대중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사랑과 이별에 걸맞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위해 창법의 변화는 물론 곡 안의 내용에 등장하는 ‘그리움’, ‘애절함’, ‘원망’ 등 주인공의 감정을 보여준다. 거친 전통 판소리 창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성을 사용하기도 하며 느리고 부드러운 우조적 창법으로 서양의 락 발라드(rock ballade) 느낌을 만들고, 힘찬 고음은 리듬앤블루스 소울(R&B soul)이나 모던 재즈의 강렬한 느낌으로 “비비비~바바밥”을 외쳐 자유분방한 비밥(bebop) 음악과 유사하다. 화가 난 마

음과 원망을 노래하는 〈언제까지〉는 신나고 빠른 비트에 힘찬 목소리로 댄스음악 풍이다.

### 4.3. 공감 언어로의 사실치레

서도밴드의 새로운 곡은 가사의 변화를 통해 판소리 춘향가의 시대적 배경과 다른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표현으로 개사하였다. 본래 〈사랑가〉는 여러 노래의 다양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고사나 한자를 모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생활상과 관련 있거나, 한자어의 수사법을 사용하여 〈춘향 어르는 노래(만첩청산)〉, 〈태도 보기 노래〉, 〈생전사랑(삼오신정)〉, 〈사후기약〉, 〈먹을거리 권하는 노래〉, 〈옷 벗기기 노래〉, 〈금옥사설〉, 〈정(情)자 노래〉, 〈애(愛)자 노래〉, 〈호(好)자 노래〉, 〈궁(宮)자 노래〉, 〈삼강오륜 노래〉, 〈맷돌노래〉, 〈업고 노는 노래〉, 〈타고 노는 노래〉, 〈말롱질 노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21)</sup>

새로운 〈사랑가〉는 전통 판소리의 한자와 고어는 생략하고 〈긴 사랑가〉 중 대중들이 흔히 아는 ‘업고 노는’ 부분의 가사만을 차용했는데,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화둥둥 내 사랑”과 같은 구절은 이전에 제작된 춘향가 관련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으로 대중들에 익숙한 부분이다. 사실에 없는 감성적인 문구, 영어단어, 의미 없는 소리말을 넣었다. 서사적이거나 남녀의 목소리에 구분이 있는 대화형식이 아니라, 세레나데와 같이

---

2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랑가>,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069>  
(2021년 10월 17일 접속)

서정적 가사를 갖고 있다. ‘네 곁에서 춤을 추리 오- 예--- 하늘 아래 너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내 맘 안에 아~’, ‘너 말곤 아무것도 없어’와 같은 부분은 본래 판소리와는 다른 가사이며 대중가요에 흔히 보이는 표현이다. 영어단어 ‘you’를 중간에 삽입한다.

장면의 전환 강조와 스펙터클(spectacle)한 묘사보다, 판소리의 문구 중 가장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두 문구를 사용해 당시의 감정 표현에 더욱 중점을 둔다. 사랑가에서 불리는 주요 대목인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사랑”은 개사와 편곡에도 그대로 차용되어 후렴구에 사용되며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별가의 경우도 새롭게 추가된 가사의 길이보다 본래 판소리에 있는 문구인 “아주 멀리 가네 가네/ 말은 가자고 네 곁을 치는디/ 님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 하네/ 인제 가시면 언제나 올라요/ 나는 못 봐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가 후렴구와 같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두 곡 모두 마지막은 “내사랑”과 “가자”라는 짧지만 주요한 문구가 수차례 반복되며 여운을 남긴다.

〈표 4〉 서도밴드 〈사랑가〉 가사

| 구조 | 가사  | 특징            |
|----|---|---------------|
| 1절 | 이리 오너라 업고도 놀자 우리 오늘 밤 업고도 놀자<br>달아 달아 지지 마라 니 아무리 바빠도 저 하늘에 멈춰있어<br>내일은 오지 말고 매일이 이 밤 같게                        | 판소리 차용 및 작사   |
| 후렴 |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br>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사랑<br>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br>You 우우 내사랑<br>워워워워 워워 워워/ 워워워워 워워 워워 | 판소리 유명 대목 에드립 |

|    |   |                 |
|----|---|-----------------|
| 2절 | 이 밤이 지나 우리 다시 헤어져도 너는 꽃이 되고 나는 나비 되어 훨훨 날아가리 네 곁에서 춤을 추리 오예~~<br>하늘아래 너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내 맘 안에 아~ 너 말곤 아무것도 없어       | 차용 및 개사         |
| 3절 | 어화등등 내사랑 어화등등 내사랑 우우우우우<br>닭아 닭아 우지 마라 니 아무리 바빠도 우지 말고 멈춰있어<br>내일이 오지 않게 평생이 이 밤 같게                             | 유명대목 개사         |
| 후렴 |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br>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사랑<br>사랑 사랑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br>You 우우 내사랑<br>워워워워 워워 워워/ 워워워워 워워 워워 | 동일 후렴구<br>2회 반복 |
| 엔딩 | 내 사랑<br>후우 워워/워워 워워 워워/워워 워워 워워<br>내 사랑   | 여음/반복구<br>에드립   |

〈표 5〉 서도밴드 〈이별가〉 가사

| 구조 | 가사   | 특징         |
|----|--|------------|
| 1절 | 사랑한 터라 힘이 들구나/ 너와 이별은 아닐진대/<br>하늘이 우릴 갈라놓아도/ 다시 올테니 걱정 말아라   | 아니리<br>오프닝 |
| 후렴 | 아주 멀리 가네 가네/ 아주 멀리 가네<br>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디/님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네<br>인제 가시면 언제나 올라요/나는 못 봐요 나는 못 봐요<br>가자 가자 어서 가자 | 관소리 대목     |
| 2절 | 가지 말라고 소리쳐 봐도/ 내 눈앞에서 멀어지더라<br>그렇게 나를 떠나셨더라/ 홀로 남겨져 살아갈 나는 어쩔라요  | 개사         |

|    |  |        |
|----|--|--------|
| 반복 | 아주 멀리 가네 가네/ 아주 멀리 가네<br>말은 가자고 네 굽을 치는디/님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네<br>인제 가시면 언제나 올라요/나는 못 놔요 나는 못 놔요<br>가자 가자 어서 가자 | 판소리 대목 |
| 엔딩 |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 여음/반복구 |

#### 4.4. 새로운 이야기 더듬

조선팝은 스타일에 있어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현시대 감성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판소리의 단순편곡이 아닌 더듬과 같이 판소리 대목에 없는 곡을 소리꾼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더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조선팝을 만든 주인공으로서 곡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신경쓰는 부분은... 첫 번째는 우선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판소리의 사설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현시대 감성으로 가사를 많이 풀어서 ... 음악편곡이나 음악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제가 현실에 맞는 상황을 상상해서 곡을 써요.<sup>22)</sup>

작사의 내용은 대중가요의 가사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화제인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작자의 뜻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중가요의 가사가 갖추어야 할 “화제, 형식, 표현, 미의식과 같은 가사의 형상화 요소와 인물설정, 스토리, 무대, 공감적 결말과 같은 작사의 4대 요소”가 대부분 포함된 형식이다.<sup>23)</sup>

22) 유튜브 채널 <데이원스튜디오, 너목보 퓨전국악인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가 왔다>, <https://youtu.be/5Y0Q3Zn5R-M> (2021년 10월 17일 접속)

23) 이호섭(2020:39)은 작사법의 실재를 위한 기틀을 세우며, “서사 가사는 소설과 희곡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계속 늘어나서, 활동초기에는 〈쑥대머리〉 대목을 편곡해서 불렀지만, 점차 이 곡에서 영감을 받아 춘향이의 감정을 해석한 〈언제까지〉를 작곡하였고 이몽룡의 마음을 담은 〈내가 왔다〉로 결말을 노래한다.

〈언제까지〉는 현실의 연인관계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서도밴드의 생각에서 작곡된 곡으로, 가사에서도 직설적으로 “언제까지 님을 기다리기만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동시대의 춘향이 감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기존의 판소리에서 들려준 느리고 애절한 계면조의 선율이 아니라 강한 여성으로의 춘향이의 다짐을 빠른 비트에 힘찬 목소리로 들려준다.

〈내가 왔다〉는 현실의 이몽룡이라면 연인을 두고 떠난 뒤 돌아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새롭게 상상한 곡이다. 춘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몽룡이 느낀 설레고 벅찬 마음을 표현하고, 춘향을 만나서는 잘못을 사과하며 자신이 그리워했다는 내용을 노래한다. 판소리에서는 솔직하고 세심하게 표현하지 못한 벅차고 설레는 남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점이 더듬의 새로운 부분이다. 밴드가 노래에 참여하며 코러스로 부르는 부분의 “에이~ 춘향야 정말 좋겠다~~”는 판소리 서사 속의 다른 인물들 목소리 혹은 고수나 관객의 추임새가 가사 속에 들어간 형태이며, 마지막 구절은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로 이야기를 맺는다,

---

을 절충한 드라마 형식의 가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스토리 보드를 바탕으로, 인물, 스토리, 무대, 공감적 결말이라는 4대 요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6〉 서도밴드 〈내가 왔다〉 가사

| 전개구조       | 가사 내용과 서사 구성   | 특징                           |
|------------|--|------------------------------|
| 서두         | 줄거리 나레이션(아니리)  | 랩                            |
| 1절         | <p>깜빡 지나가 버린 세월에 나는 암행어사가 되었고 이젠 사랑하는 내 님에게 간다, 간다-</p> <p>얼마나 기다려 왔던 날인가 벽찬 가슴 마음을 가득 안고 서 굳게 기다려준 내 님에게로 간다, 간다-</p> <p>한양에서 남원으로, 먼 곳에서 네 품으로, 긴 시간 지나 네게 간다</p> <p>힘차게 달려라, 내 님이 날 기다린다, 한시라도 더 빨리 가자 아- 내가 왔다 내가-</p> | 노래 시작<br>몽롱 대사               |
| 후렴구<br>코러스 | <p>코러스: 변사또는 별을 받아라</p> <p>내가 왔다 내가</p> <p>코러스: 춘향아 어서 나와라</p> <p>바람타고 구름타고 네게로 왔단다 어서 나오너라</p>  | 밴드/<br>보컬<br>합창/<br>독창<br>교환 |
| 간주         | 밴드 악기 반주   |                              |
| 2절         | <p>벌컥 문이 열리고 춘향이 털석 그 자리에 주저 앉아 평평 슬피 울음을 울며 말하길</p> <p>-----중략</p>  | 춘향<br>대사                     |
|            | <p>춘향아 우지 마라, 너무 늦어버린 나를 용서해다오,<br/>한양에 있을 때 널 잊은 적이 없다</p> <p>이제 그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왔다 내가</p>   | 몽롱<br>대사                     |
| 후렴구<br>코러스 | <p>코러스: 선남선녀가 다시 만났네</p> <p>내가 왔다 내가</p> <p>코러스: 에이 춘향아 정말 좋겠다~</p> <p>----중략</p>  | 밴드/<br>보컬<br>합창/<br>독창<br>교환 |
| 결말         | <p>... 춘향 몽롱 행복하게 살았다네...</p> <p>(아니리)</p>   | 아니리<br>내용<br>설명              |

## 5. 결론

판소리 대중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 판소리의 변화를 지칭하며 근래 시도된 대부분의 판소리 창작 현상을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험하는 이 시대 소리꾼들의 예술정신을 포용하려는 의미를 담아 왔다. 시도와 모험을 격려하는 열린 개념에서 점차 규준의 필요성이나 음악적 완성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판소리의 대중화는 음악적 요소와 외적 양식에 무게를 두기보다 창작판소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소리꾼이 서사성의 현대화와 동시대적 더듬의 확보라는 책임감 있는 재맥락화를 달성할 때 가능하다.

서도밴드의 조선 팝이 여타 판소리 대중음악과 차별되는 점은 춘향이 한바탕을 충실하게 풀어내어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판소리의 더듬과 동일한 음악을 생산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감에 있다. 현대적 서사와 더듬의 노랫말은 과거의 언어적 수사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음악의 작사법과도 차별성이 있다. <사랑가>와 <이별가>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가자가자 어서가자” 등 잘 알려진 판소리 가사에 새로운 사설 불임새와 후렴구를 넣어 유절형식과 운율감을 주었다. 전주와 후주의 독백은 랩 혹은 아니리를 활용한 것으로 최근 대중가요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작사법인 ‘자유가사’ 형식을 많이 취했지만, 대중가요가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등의 수사법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차별성이 있다.

<언제까지>와 <내가 왔다>는 기존의 판소리 춘향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야기의 전개를 변형하지 않으면서 춘향과 몽룡의 감정을 동시대 인간관계의 정서로 표현하면서 서사를 견고히 한

다. 현실의 관객이 즐거리는 물론 주인공의 감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효과적인 대중화 방향으로의 ‘공감서사’가 완성된다. 다채로운 대중음악적 요소의 선율, 창법, 형식감, 노랫말로 감미로운 분위기와 편안한 음악을 만들어 짧은 시간에 춘향가를 풀어내는 조선팝 판소리는 〈춘향가: 대중가요제 서도밴드바디 스윙조/알앤비조〉 등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다.<sup>24)</sup>

---

24) 이날치 밴드가 별주부와 토끼의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빌딩 숲 사이로 폰 내려온다”, “당장에 Z플립을 주옵소서”, “5G” 등 스마트폰 광고음악 <Z플립진>의 노랫말을 부쳤다면, <수궁가>에 공감적 서사성과 동시대적 더듬으로 재맥락화 한 <수궁가: 대중가요제 이날치밴드바디 힙합댄스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도영. 2019. 「판소리 서사의 재맥락화를 통한 공감서사의 창작-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47, 판소리학회: 137-166.
- 김영주. 2021. 「<이날치 밴드 수궁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예술연구』 33,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35-255.
- 박성환. 2014. 「21세기 창작판소리의 성과와 과제」, 『한국전통문화연구』 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5-253.
- 이동연. 2021. 「예술한류의 형성과 문화정체성 - '이날치' 현상을 통해서 본 문화세계화」,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53-74.
- 이명현. 2021. 「판소리의 탈맥락화와 문화혼종: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59-184.
- \_\_\_\_\_. 2012. 「다문화시대 판소리의 재인식과 문화적 가치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1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63-185.
- 이태화. 2013. 「판소리에 대한 엇갈린 인식과 대중화의 향방」, 『판소리연구』 35, 판소리학회: 153-182.
- 이호섭. 2020. 「대중가요 작사법 시론」, 『대중음악』 26, 한국대중음악학회: 9-42.
- 임형택. 2021. 「'이날치' 수궁가와 문화콘텐츠 이상의 문학적 가치 : 범은 어떻게 이름을 남기는가?」, 『인문콘텐츠』 60, 인문콘텐츠학회: 109-132.
- 장윤희. 2015. 「창작 판소리의 변화양상과 판소리 세계화의 담론」, 『한국음악연구』 57, 한국국악학회: 191-216.
- 한재원. 2021. 「[음악] 판소리 신드롬 이날치밴드 '조선 힙합」, 『월간 샘터』 611, 샘터사: 95-95.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서재현> [https://instagram.com/seodo\\_o?utm\\_medium=copy\\_link](https://instagram.com/seodo_o?utm_medium=copy_link)

페이스북 <서도밴드 공식 계정> <https://www.facebook.com/pg/seodoband/posts/>

텀블버그 <서도밴드의 첫 E.P <Moon: Disentangle>> [https://tumblrbug.com/seodoband\\_d](https://tumblrbug.com/seodoband_d)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저니투코리아음악 프로그램 공모 선정결과 안내>  
[https://www.theapro.kr/kor/kams/notice\\_view.asp?idx=6165&searchColumn=title&searchKeyword=2020%20%EC%A0%80%EB%8B%88%ED%88%AC%EC%BD%94%EB%A6%AC%EC%95%88%EB%AE%A4%EC%A7%81&r\\_category=](https://www.theapro.kr/kor/kams/notice_view.asp?idx=6165&searchColumn=title&searchKeyword=2020%20%EC%A0%80%EB%8B%88%ED%88%AC%EC%BD%94%EB%A6%AC%EC%95%88%EB%AE%A4%EC%A7%81&r_category=)

(주)지니뮤직 <조선 팝 아티스트 ‘sEODo’ 세 번째 싱글 [사랑가] 앨범 발매 기념 인터뷰> [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mgz\\_seq=7850](https://www.genie.co.kr/magazine/subMain?mgz_seq=7850)genie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랑가>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1069>

네이버 블로그

김뿌우 <수궁가 봤고 너무 열받아서 쓰는 후기> <https://geuichana.tistory.com/56> (2021년 6월 12일)

<국악아카펠라 공연 섭외 토리스> <https://blog.naver.com/junsu1199/221889475992>

<유튜브 채널>

<테이웬스튜디오, 너목보 퓨전국악인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가 왔다>  
<https://youtu.be/5Y0Q3Zn5R-M>

<Mnet Official,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7, 제 12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소름 끼치는 ‘조선’ Pop 무대! 장관상 받은 퓨전 국악인(서재현)의 ‘야상곡’ & ‘사랑가’> <https://youtu.be/tSq-9cgyz-w>

<KBS 국악한마당 ‘2019 KBS 국악신예대상’> [https://www.youtube.com/watch?v=P\\_Yx\\_bs36TM](https://www.youtube.com/watch?v=P_Yx_bs36TM)

## Abstract

### A Study on Modern Pansori Narrative and Composition in Joseon Pop Music - “The Song of Chunhyang” Sung by sEODO Band -

Chang, Yoon 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Recently, *pansori*,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vocal music, has been depicted and represented as an enjoyable popular song for contemporary audience with its unique Korean sensibility. This paper examines the narrative contexts and significance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composing new *pansori* as well as the phenomenon of popularizing it. The discussion mainly deals with the analysis of sEODO band's “Song of Chunhyang,” a version with prefix “Joseon pop.”

“Popularization of *pansori*” had meant almost all types of new *pansori* music comprehensively embracing even the ideas of musicians who tried new music with artistic creativity or diversity. However, voices requiring cannon or criteria for composing pansori, breaking from reckless musical adventure or trial. Rather than focusing on the musical element or genre style, *pansori* can become popular when the musician achieves assessing reasonable re-contextualization to modern and contemporary songs so that the narrativity in the story telling survives and continues.

sEODO band's new song is considered same as *deonjam*, the newly added parts in *pansori* from long time ago. This tradition of adding pieces complementing the musical story differentiates sEODO's music from other popular songs. However, the lyrics and narration are neither old traditional *pansori* nor popular songs. Though adapting modern style and freestyle lyric writing, the band removes the linguistic metaphor of the past and abates rhetorics in popular music. The understandable sensibility completes sympathetic narrative in “Song of Chunhyang” with popular music elements, and in the long run thus the music can be called <Song of Chunhyang in Popular music school, sEODO band fashion, swing/R&B mode>.

Key words : Popularization of pansori, Newly created pansori, sEODo band, Song of Chunhyang, deoneum, contemporary traditional music

논문 투고일: 2021년 10월 19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2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5일

